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정만 스님,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창일 의원, 장운석 의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등 주요 내빈이 행복바라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점등했다.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공상정, 조해리 선수가 팬들에게 사인을 해 주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1천여 관객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노란수건을 흔들고 있다.

행복 바람, 나눔문화 훈풍 전국서 부네

날마다 좋은날, 6월 19일 광화문광장서 선포식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길벗, 전통문화와 나눔문화로 어우러진, 2014 대한민국 문화대축전의 출발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홍)은 6월 19~20일 광화문 일대에서 ‘2014년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행사를 열었다.

19일 첫날은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전시와 광화문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발걸음을 했다. 오후에는 국군 의장대 퍼레이드 및 니르바나오케스트라 공연과 난타공연 등 많은 볼거리를 선보여 퇴근길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반야심경 인경 체험과 연등 만들기 등의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북청사자놀이 등 전통문화 공연이 마련됐다.

지난 해 이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한 행복바라미는 그동안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인기배우 등 유명스타들이 홍보대사로 대거 참여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공상정, 조해리 선수를 비롯해 전국가대표 수영감독 노민상 교수와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수영 금메달리스트 정다래가 참여해 팬사인회를 가졌다.

이어 북측광장 특별무대에서 행복바라미 알림식이 거행됐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정만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창일 의원, 장운석 의원,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내외빈과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신용카드로 기부를 하는 행복바라미 단말기를 시연한 뒤, 행복바라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점등했다.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자승 스님을 대신해 치사를 낭독했다. 정만 스님은 “세상의 변화는 작은 몸짓과 발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장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이들의 좋은 길벗이 되겠다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취지를 격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조계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어주는 등 여러 가지 국가적 슬픔에 불교계가 자유와 위로의 등불이 되주고 있다”며 “서울시도 불교계와 힘을 합쳐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 조성사업,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교계와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많은 일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 이번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홍 행복바라미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띄우기 위해 행복바라미라는 이

름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대한민국의 압축성장 이면에 많은 사회구조의 모순과 각종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행복바라미의 자비와 참여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해 우리모두가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원한다”며 “2년차 출발을 선포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조계종 前 교무원장 청화 스님의 축시 ‘나누는 손바닥’을 함께 낭독하고 행복바라미 로고송을 불렀다. 또한 저녁 8시부터는 승무·바라

금역은 무의탁 노인과 청소년, 빈곤 이주민 등 사회복지망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기홍 날마다 좋은날 이사장은 “행복바라미 모금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우리사회의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들에게 쓰여지는 캠페인”이라며 “각 모금기관마다 배분위원회를 두고 기관, 단체별로 수혜 대상자들을 추천 받아 중앙신도회에서 승인하면 모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 사업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퍼레이드·전통문화체험 등 행사 다채 사부대중 1천여명 참여해 즐거운 시간 7월 5일까지 16개 시 108 모금 캠페인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춤·난타·인디밴드의 축하공연이 선보이고, 밤 9시부터는 애니메이션 ‘붓다’ 가야의 상연됐다.

한편 행복바라미는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108곳에서 나눔문화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이 기간 동안 행복바라미는 △수원 팔달구 지동교(6월 22일) △대전 은행동 응봉정인 문화의 거리(6월 28일) △광주역 광장(6월 29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7월 5일) △부산 광복로 패션거리(7월 6일) 등 지방랜드마크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모연된

나누는 손바닥

청화 스님(조계종 前 교무원장)

물이 마른 개울 바닥 같이/ 돌들만 앙상한 세상이 되어서야 쓰겠는가/ 사람이어늘/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살을 가진 사람이어늘/ 불빛이 꺼져가는 가난한 얼굴들을/ 어찌 먼 산 같이 바라만 보고 살아야하리./ 처마 밑 다리 부러진 제비 새끼도/ 살들이 손보아 살려준 흥부 같은/ 타고 난 마음씨는 어찌하고/ 타고 난 그 마음씨는 어찌하고/ 이렇하여 행복바라미는(여기저기 행복을 바라는 영혼들의 소리에/ 두 귀를 세우고 일어난 몸/ 바람을 불러 나직이 외친다./ 흰 접시에 높이 받드는 꿀떡/문 닫고 혼자만 먹는 그 입에는 끝내 가시가 돌아 피를 흘리지만/ 여럿에게 나누는 손바닥 위에는/ 아, 나누어 넘어진 그 손바닥 위에는/ 점점 보석이 쌓여 빛나는 것이라고/ 그러나 혼자서 다만 혼자서/어든 돌밭에 행복을 찾는 발걸음/여기 와 나누는 길 함께 가자고/ 그래, 이 소식은 천지에 전해/행복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나뭇잎처럼 풀잎처럼 흔들려 달라고.



국군 의장대 퍼레이드가 시연되고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버너를 돌리고 있다.



평일임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대자대비의 그늘을 드리우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주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을 이루는 영험한 기도도량 - 현지사 서울분원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10만독으로 소원을 성취하다

2012년에는 아들딸이 좋은 배필 만나기를 발원하면서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10만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 10만독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만독을 다 마치고 난 어느 날, 아들딸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귀가하다가 차가 터질 벽을 들이박아 두 바퀴를 돌아버린 대형 전복사고가 났는데 지금 용인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SM5 승용차는 종이짜처럼 구겨져 폐차했습니다만 아들은 기적처럼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원했던 바대로 아들 딸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배필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머느리가 될 새색시가 뜻밖에도 좋은 집을 마련해왔습니다. 딸도 인턴 수련의와 곧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 걱정을 놓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이야기 ①’ 중에서 - 경기도 안양시 최안나

관세음보살님 기도 및 공부법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3,5,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관세음보살’ 칭명법문을 합니다

서울분원 관음재일 안내 : 매일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안내 : 음력 1일, 15일, 23일,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혜민병원 뒤) 02-453-5953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
7월 6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화상에서 불과 이론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길 우주적 전리의 산물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8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